

Enchanticket

티켓에 주문을 외우면, 그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리 수리 마수리~ 암!

여행 중에는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찍는 것이 매우 쉽고 간단해지면서, 많은 기억들이 사진에 담깁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진을 어느때보다 많이 찍게된 것에 비해 기기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보는 행위는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EnchantedTicket은 AR 기술을 활용하여 여행 중에 생긴 티켓, 영수증과 같은 종이 기념품과 그 순간의 사진을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사진을 다시 보며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기 간 2019

작업 형태 팀 작업(3인)

Design Background

기억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사진

사람은 기억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그 기억을 저장하고, 사진을 통해 그 기억을 불러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사진을 훨씬 간편하고 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사진을 찍고, 더 많은 기억을 그 사진에 저장합니다.

Target User : 여행자

여행을 떠나면 소중하고 특별한 기억들이 평소보다 밀도있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사람들은 그 기억을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을 모으면서 저장합니다.

많이 찍고 적게 보는 디지털 사진

하하지만 한 번 찍고 저장된 디지털 사진은 기념품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기 쉽지 않아 잘 보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진의 양 때문에 특정 순간의 사진을 다시 찾기도 어렵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종이 기념품

많은 사람들이 놀이공원의 티켓, 지하철 표, 정말 맛있게 먹은 식당의 명함이나 영수증을 수집합니다. 돈을 주고 산 기념품들과 달리 이러한 종이 기념품들은 여행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 디지털 사진과 달리 실체가 있지만, 사진만큼 기억을 정확하게 저장 하하지 못합니다.

Design Concept

여행에서의 기념품과 사진을 연결

Enchanticket은 여행 중에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종이 기념품에 당시의 사진을 연결시켜 기념품을 매개로 사진을 열람하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돋는 제품입니다.



User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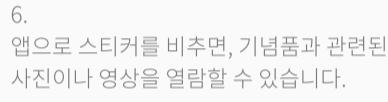
- 전시회, 놀이공원, 식당 등 여행지에서 종이 티켓을 수집합니다.
- 종이 기념품들을 Enchanticket에 보관합니다.
- 지갑의 뒷 슬롯에서 스티커 판을 꺼내고, 어울리는 스티커를 기념품 위에 붙입니다.
- 스티커 판을 다시 집어넣으면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 자동으로 GPS 정보와 시간이 스티커에 연동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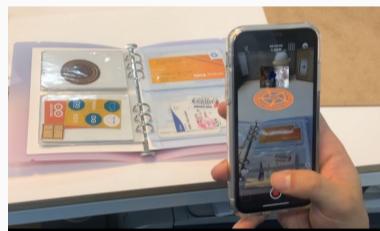
여행 시작

추억 회상

여행 끝



- 앱으로 스티커를 비추면, 기념품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집에 돌아오면 모든 기념품들을 티켓북에 옮깁니다.

Working Prototype

Software

AR 어플리케이션이 스티커의 AR마커를 인식해, 종이 기념품과 연결된 사진을 더 재밌게 보여줍니다.



스티커

스티커는 AR마커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스티커는 QR코드처럼 고유한 무늬가 있어 스티커끼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에 따라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스티커를 붙인 곳이 랜드마크 주변이라면, 이를 활용해 랜드마크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